

7月中 國內石油類 수급동향

—韓國石油開發公社 企劃調查部—

1. 國內石油類 수급동향(總括要約)

가. 原油도입

- 전년동기보다 16.2% 증가한 115,422천 배럴로서 D-D와 現物이 증가추세에 있음.
- 導入國數는 14개국이며, 中東의존도는 66.8%임.
- 總導入金額은 326천만달러(F.O.B)이며, 平均導入單價는 28.26달러임.

나. 原油處理量 및 가동률

- 1~7月中 總原油처리량은 117,158천 배럴로 11.8% 증가했고, 7월말 현재 積動率은 67.7%(임가공 제외시 55.2%)임.

다. 石油製品 공급

- 總供給은 전년동기보다 11.9% 증가한 129,145천 배럴로 생산이 12.2% 증가한 115,910천 배럴, 수입이 12.7% 증가한 13,235천 배럴임.
- 생산에 있어서 B-C油 수율이 낮아진 반면, 경질유 및 나프타 수율이 높아지고 있음.

라. 石油製品 수요

- 총수요는 전년동기보다 9.6% 증가한 125,711천 배럴이며 그 중 内需가 3.6% 증가한 112,876천 배럴, 수출이 125.3% 증가한 12,834천 배럴임.
- 수출은 여전히 湖油와 雙龍의 임가공 수출이 거의 대부분임.

마. 内需 증가요인

- 전년동기보다 3.6% 증가한 内需의 요인은 民需부문의 運輸(20.5% 증가), 취사난방(13.5% 증가), 纖維(5.8% 증가), 機械金屬(38.1% 증가)의 소비증가와 船舶用 병커링이 134.9% 증가함에 기인함.
- 油種別로는 挥發油, 輕油, 가스類 등이 15% 이상의 높은 增加率을 보였고, 發電의 燃料代替로 수요가 감소한 B-C油는 6.6% 감소했음.

2. 原油 도입실적

가. 導入先 및 도입지역별 動向

1) 導入先別 동향

- 總物量은 전년동기보다 16.2% 증가했고, G-G와 메이저의 물량이 계속 감소추세인 반면, 現物의 증가추세가 더욱 커지고 있음.

區 分	83. 1~7		84. 1~7		增 減
	物 量	比 率	物 量	比 率	
G - G	13,176	13.3	6,113	5.3	△53.6
D - D	47,862	48.2	56,152	48.7	17.3
메이저	15,823	15.9	11,876	10.2	△24.9
現物市場	22,431	22.6	41,280	35.8	84.0
計	99,292	100.0	115,422	100.0	16.2

註：現物에는 임가공 포함.

2) 地域別 등향

- 中東의 준도가 66.8%로 낮아진 반면, 東南아시아로 부터의 의준도가 20.2%로 대폭 높아졌음.
- 中東內에서도 導入減少國家는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이며, U.A.E와 카타르는 무려 695% 및 103%나 증가했음.
- 7월말 현재 총 도입국수는 中東 7개국, 東南亞 4개국, 아프리카 2개국, 中南美 2개국 등 總 14개국으로 변동 없음.

區 分	83. 1~7		84. 1~7		增 減
	物 量	比 率	物 量	比 率	
中 東	72,027	72.5	77,767	66.8	7.0
東 南 亞	12,288	12.4	23,340	20.2	89.9
아 프 리 카	8,205	8.3	6,731	5.8	△18.0
中 南 美	6,772	6.8	8,284	7.2	22.3
計	99,292	100.0	115,422	100.0	16.2

나. 導入金額

84年 1~7월중 總導入金額 326千萬달러(F.O.B), 339千萬달러(C & F)이며, 平均單價는 28.26 달러(F.O.B)임.

구 分		회 발 유	燈 油	輕 油	B-C油	나프타	창 공 유	기 타	計
생 산	물 량 증감(%)	3,131 18.5	5,271 8.6	31,043 15.3	47,316 5.1	15,707 30.0	7,074 13.7	7,368 13.9	115,910 12.2
수 입	물 량 증감(%)	— —	— —	1,660 70.9	5,627 △14.7	2,617 15.9	— —	3,631 60.7	13,235 9.4

註：수입중 기타는 프로판 2,202, 부탄 1,129를 말함.

4) 7월중의 精油社 가동률은 67.7%(임가공제 외시 55.6%)이며, 1~7월중 總原油처리량은 전년동기보다 11.8% 증가한 117,158千 배럴임.

— 7월중 社別 가동률 (단위 : %)

區 分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計
83. 7	78.2	47.0	45.5	107.3	88.3	63.1
84. 7	79.3	59.9	62.6	69.2 (35.9)	67.7	67.7 (55.2)

註：()은 임가공 제외시稼動率임.

— 84年 月別 가동률 推移 (단위 : %)

區 分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總 稼 動 率	73.3	78.2	71.0	67.3	60.5	72.4	67.7
임가공제외시 稼 動 率	67.0	73.0	61.7	57.5	52.3	59.9	55.2

3. 石油類 수급실적

가. 概 況(84. 1~7월)

- 總 製品供給은 전년동기보다 11.9% 증가 (국내생산 12.2%, 輸入 9.4% 증가)
- 總製品수요는 전년동기보다 9.6% 증가(内需 3.6%, 수출 125.3% 증가)

區 分	供 級			需 要		
	生 產	輸 入	計	內 需	輸 出	計
物量(千배럴)	115,910	13,235	129,145	112,876	12,384	125,711
構成比(%)	89.8	10.2	100.0	89.8	10.2	100.0
前年比增減(%)	12.2	9.4	11.9	3.6	125.3	9.6

3) 공급중 제품생산 및 수입현황

- 生産：국내 油類消費性向이 경질화됨에 따라, 挥發油, 輕油, 航空油 등의 수율이 높아지고, 나프타 생산량 또한 증가폭이 커었으나, 상대적으로 B-C油의 수율이 전년의 44%에서 41%로 낮아졌음.
- 輸入：發電用 저유황 B-C油의 輸入이 감소한 반면, 輕油와 가스類는 60%~70% 증가율을 보였음.

— 1~7月 社別 原油處理量

(單位 : 千배럴)

區 分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計
國 內 處理量	44,929	37,267	8,963	8,936	1,369	101,464
增 減 (%)	0.1	19.6	26.2	27.8	△27.5	11.8

註：增減은 總量에 대한 것임.

나. 石油類 소비성향

1) 수요중 内需 및 수출동향

수출과 내수에서의 병커링이 125.3%와 134.9%의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民需는 2.4%의 증가

□ 動向分析 □

를 보여 구성비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아져, 전년동기에 95.0%가 89.8%로 되었음.

(單位: 千배럴)

區 分	內 需				輸 出	計
	民 需	벙커링	其 他	小 計		
83.1~7	103,043	883	4,988	108,913	5,694	114,607
84.1~7	105,560	2,075	5,241	112,876	12,834	125,711
增 減	2.4		5.0	3.6	125.3	9.6

가) 벙커링 增加要因: 輸出入 물동량 증가로 外航船에 대한 수요증가에 기인

B-C油	輕 油	제트A-1	기 타
83(千배럴)	375	74	416
84(千배럴)	1,317	168	543

나) 수출증가요인: 거의 湖油와 雙龍의 임가공 수출증가에 따른

B-C油	나프타	경 유	제트A-1	기 타
83(千배럴)	772	1,872	1,886	893
84(千배럴)	4,396	3,906	2,731	1,306

—증가 요인 분석

區 分	增 加 率	主要油種增加率	要 因
運 輸	20.5% (18,879→ 22,753)	揮發油: 19.8% 輕油: 24.4% LPG: 16.3%	揮發油: 일반승용차 증가 輕油: 荷物 및 旅客物動量의 지속적인 신장 ガス: 영업용 乗用車輛 증가
취사·난방	13.5% (9,950→ 11,301)	B-C油: 25.7% 燈油: 9.3% 프로판: 35.7%	1/4분기중의 이상저온으로 증가했던 物量이 累積되어 오고 있는 것이나 B-C油는 집단가구와 영업용 빌딩增築으로 前年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음.
纖 維	5.8% (4,247→ 4,012)	B-C油: 5.3% 輕油: 8.7%	증가율은 낮으나, 製造業中 가장 많은 물량이 늘어났으며, 이는 纖維類 輸出增加에 힘입은 것임.
機 械 · 金 屬	38.1% (2,330→ 1,686)	B-C油: 58.1% ガス類: 33.1%	B-C油: 内需 및 輸出 양측에서 모두 好況을 맞고 있는 자동차, 電子, 電氣, 機材產業에서의 소비 증가 ガス류: 고열에너지 產業에서의 가스選好 경향에 의함.

2) 용도별 消費 性向

—상반기중 增加幅이 커진 運輸와 취사난방용 油類의 증가율이 차츰 둔화되고 있으나, 제조업의 油類소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주요 용도별 油類消費 추이

	1 월	1~3 월	1~5 월	1~7 월
발 전	△26.7	△11.8	△22.2	△20.0
운 수	27.4	26.4	23.0	20.5
취사난방	20.6	21.7	16.2	13.5
제 조 업	7.5	6.3	11.1	9.6

	發 電	運 輸	水 產	취 사	製 造 業						其 他	計
					化 學	鐵 繩	鐵 鋼	機械金屬	其 他	小 計		
83. 1~7	29,206	18,879	5,203	9,950	17,677	4,012	2,695	1,686	8,185	34,255	11,420	108,913
84. 1~7	23,391	22,573	5,304	11,301	19,412	4,247	2,428	2,330	99,145	37,562	12,565	112,876
增 減(%)	△20.0	20.0	2.0	10.5	9.8	5.8	△10.0	38.1	11.7	9.7	10.0	3.6
構成比(%)	20.7	20.2	4.7	10.0	17.2	3.7	2.2	2.1	8.1	33.3	11.1	100.0

註: 其他內는 國際벙커링, 軍納, 美軍納, 公公用 포함.

다. 84. 7月 油種別 石油類 소비동향(생략)

라. 소비 증감요인 분석

1) 總 括

—國內消費인 内需는 年初의 증가추세보다 계속 둔화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일반 民生用 수요인

민수의 증가추세는 더욱 하락폭이 커져 2.4%까지 떨어졌음.

(單位: %)

區 分	1月	1~2	1~3	1~4	1~5	1~6	1~7
内需增加率	7.7	8.9	11.7	9.0	5.2	4.7	3.6
民需增加率	4.4	7.9	10.7	7.7	3.7	3.2	2.4

—民需(内需의 93.5%) 증가의 요인은 運輸, 취사 난방, 화학, 機械金屬 부문에서의 소비가 증가한데 있음.

2) 指揮發油(内需의 2.6%) : 전년동기보다 16.9 % 증가

(單位 : 千배럴)

區 分	民 需	國 防	美軍納	計
83. 1 ~ 7	2,110	186	185	2,481
84. 1 ~ 7	2,528	220	153	2,901
增 減(%)	19.0	18.3	△17.3	16.9

—증가요인 : 指揮發油 사용 車輪의 증가

車輛臺數(6月末 현재)	83	84	增減(%)
	267,755	335,250	25.2

3) 燈油(内需의 4.3%) : 전년동기보다 8.7% 증가

(單位 : 千배럴)

區 分	民 需	國 防	美軍納	計
83. 1 ~ 7	4,448	5	1	4,454
84. 1 ~ 7	4,834	9	3	4,346
增 減(%)	8.6	—	—	8.7

—증가요인 : 1/4分期의 취사·난방용 油類 증가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임.

취사난방(民需의 72.7%)	83. 1 - 7	84. 1 - 7	增減(%)
	3,214	3,514	9.3

4) 輕油(内需의 24.9%) : 전년동기보다 14.7 % 증가

(單位 : 千배럴)

區 分	民 需	國 防	美軍納	벙커링	計
83. 1 ~ 7	22,362	1,483	552	75	24,472
84. 1 ~ 7	25,708	1,632	566	168	28,074
增 減(%)	14.9	9.9	2.6	125.3	14.7

—증가요인 : 荷物物動量 증가에 따른 運送用 油類(民需의 59.2%)의 24.4% 증가와 제조업(民需의 11.5%)의 7.8% 증가에 있음.

	83. 1 - 7	84. 1 - 7	增減(%)
運 輸(千배럴)	11,234	15,222	24.4
製 造 業	2,755	2,967	7.3
水 產 海 運	2,945	2,986	1.3

5) B-C油(내수의 43.0%) : 전년동기보다 6.6 % 감소

(單位 : 千배럴)

區 分	民 需	國 防	美軍納	벙커링	計
83. 1 ~ 7	51,296	193	15	375	51,879
84. 1 ~ 7	46,967	220	—	1,317	48,503
增 減(%)	△ 8.5	13.6	—	251.2	△ 6.6

—감소요인 : 製造業 부문과 벙커링에서의 油類 소비가 國內景氣의 꾸준한 성장과 수출의 신장으로 증가하였으나 B-C油 最大消費處인 發電부문에서 有煙炭과 原子力으로 대체함에 따라 전 체적으로 감소를 보였음.

	83. 1 ~ 7	84. 1 ~ 7	增 減(%)
발 전	28,906	22,741	△21.4
제 조 업	15,709	16,929	7.3
난 방	2,533	3,186	25.7
수산해운	1,515	1,569	3.6

6) 나프타(내수의 12.0%) : 전년동기보다 9.0 % 증가

區 分	石油化學	肥 料	其 他	計
83. 1 ~ 7	10,192	2,344	144	12,650
84. 1 ~ 7	11,469	2,186	139	13,794
增 減(%)	12.5	△ 6.7	21.9	9.0

—증가요인 : 肥料業界의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石油化學工業에서의 소비증가에 起因함.

	83. 1 - 7	84. 1 - 7	增減(%)
蔚山석유공단	3,746	4,524	20.0
湖南 에틸렌	4,742	6,089	28.4

7) 프로판 및 부탄(내수의 6.0%) : 전년동기보다 30.0% 증가

—프로판은 소비의 75%를 차지하는 취사난방 부문에서 35.7% 증가(1,613千배럴→2,189千 배럴) 하였으며,

—부탄의 소비는 78%를 차지하는 運輸用 소비가 14.8% 증가(2,627千배럴→3,018千배럴) 하였는데 영업용 택시의 LPG化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

8) 其他 油種(경질중유, 중유, 항공유, 용제,

□ 動向分析 □

아스팔트 내수의 7.0% : 전년동기보다 6.1 % 증가
 체트A-1: KAL의 소비는 2.1% 감소했으나 國際 벙커링이 30.7% 증가함에 힘입어 4.8% 증가

— 경질 중유 : 水產海運(민수의 53.4%)의 4.0% 증가와 적은 物量이지만 기계금속, 요업등의 소비가 66%, 26.2%씩 증가를 보여 6.2%增加
 — 아스팔트 : 건설에서의 수요(全体의 84.6%)가 전년동기보다 18.9% 증가함에 기인.

□ 海外石油業界動向 □

엔화약세로 석유사들 상반기 수익악화

日本석유회사들의 경영실적이 부진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에 힘입어 판매량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제품시황의 저조와円貨의 약세로 인한 환차손이 겹쳐 수익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금년도 결산은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성이 를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요는 지난 해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금년 9월 상반기에도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 이는 휘발유와 輕油의 착실한 수요 신장 외에도 경기상승과 혹서로 인한 중유 수요의 증가 경향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본 최대의 석유회사 日本石油의 경우, 상반기 판매량은 당초 전년동기비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증가와는 반대로 시황은 약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에 휘발유 도매값을

日本石油會社 경상손의예상

(단위 : 억円)

회사	기간	84년도	상반기(4~9월)
日本石油		250(252)	50(▲ 74)
마루젠석유		35(28)	▲ 65(▲ 68)
미쓰비시석유		50(▲16)	▲ 20(▲ 82)
다이코석유		35(17)	▲ 50(▲ 72)
제네랄석유		90(99)	▲ 10(▲ 30)
코아석유		60(6)	10(▲ 79)

(주) : ()안은 전년동기. ▲ 표는 손실.

인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으며, 輕油 등 다른 제품의 값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더우기 6월 이후 갑작스런円貨약세가 경영실적의 악화를 더욱 초래하고 있다. 日本石油의 경우 상반기 유전스 환차손이 40억円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石油는 8월 말부터 제품값 인상을 단행, 상반기에 50억円 정도의 경상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전년동기에 값비싼 원유재고의 부담때문에 대폭적자를 본 코아石油도, 금년 상반기에는 석유 코크스의 판매호조에 힘입은 바가 커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반면에 수익력이 약한 마루젠石油과 다이코石油는 계속 대폭 경상적자를 볼 전망이다.

9월 1일로 각 판매회사의 제품값 인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각사에서는 하반기에 경상흑자를 달성, 상반기의 실적부진을 메꾸어 나갈 방침이다. 이번의 가격인상은 휘발유가 1㎘당 6천円, 경유·등유등 중간유분이 7천円으로 대폭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소비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으며, 인상한 가격으로 출하하여도 나중에 소비시장의 실세가격에 맞춘 가격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의 엔화 시세에 따라 하반기에 흑자로 돌아서더라도 금년도의 이익은 각사 모두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을 전망이다.